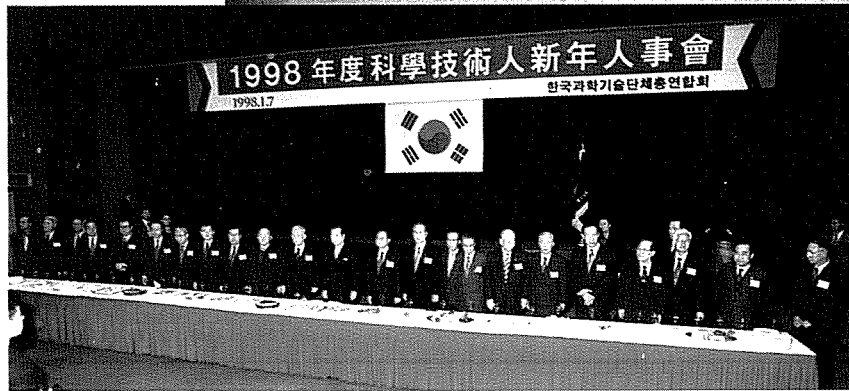


# ” 경제살리기에 500만 과학기술인 앞장

◇ 金大中당선자 과학기술인 등의 협력 당부

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金大中 대통령 당선자를 초청한 가운데 1998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. 權肅一과기처 장관, 閔寬植과총병예회장, 崔亨燮과총회장 등 관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“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‘질’ 좋고 값싼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길 밖에 없다”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.



▷ 각계 인사 5백여명 참석

이날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는 金殷永국기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, 趙完圭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외에도 국회 金德龍, 朴九益, 李祥義, 李台贊, 張永瀛, 鄭錫宣의원과 姜德基서울시장직무대리 등 내빈이 참석했다



# 21세기 과학한국 건설의 元年 이루자



◇ 權肅—장관 새해 건배 제의

權肅—과학기술계  
가 제2의 건국에 걸맞게 21세기 과학한  
국 건설에 앞장설 것과 우리나라가 하루  
빨리 난국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”하는  
건배제의에 따라 참석인사들이 건배를 하  
고 있다.



◇ 金大中당선자, 악수로 신년인사

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이날 참석  
한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일일이 악  
수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.